

Environmental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Social

Governance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3 12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2. ESG 정치화 흐름

“2024년 미 대선의 안티ESG 거세질까, 잦아들까… 사회(S)중심의 ESG 리브랜딩 움직임도 등장”

2021년 본격화된 미국 공화당의 안티 ESG 움직임이 올해로 3년째다. 특히 2024년 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티 ESG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안티 ESG법안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면,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플레이아데스 전략(Pleiades Strategy)의 2023안티 ESG 법안 트래커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한해 총 165개의 안티ESG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중 19개가 통과됐다. 하지만 안티ESG법안 자체의 주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치화를 통한 세 걸집 효과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의 주지사 드센티스는 공립학교의 다양성 분야 지출 금지 법안 통과, 동성애 교육 금지법 발의, 다양성 이슈 갈등으로 인해 미 디즈니(Disney)사에 자치권을 박탈하는 등 반(反)다양성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 상원의회는 ESG투자 금지 법안을 승인했고(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미국 하원은 기후예산 삭감 법안 통과하는 등 안티 ESG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연례서한을 통해 ESG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금융계의 ESG열풍을 이끌었던 래리 핑크(Larry Fink) 블랙록 CEO는 지난해 6월 “ESG 용어가 정치화되었다”며 “ESG용어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안티 ESG 논쟁은 점점 더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법무법인 K&L Gates의 파트너인 랜스 다이얼(Lance Dial)은 책임투자미디어 RI에 “앞으로 안티 ESG를 둘러싼 분쟁이 점점 더 법정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직장연기금지제가 투자를 고려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허용한 미 노동부의 규칙(일명 ‘ERISA(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규칙)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강조해 ESG 요소를 제한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개정했고,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3월 다시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됐다. 결국 공화당 25개주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텍사스법원은 지난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 법원은 “미 노동부가 ESG 편향이라고 보기 어렵고, ESG를 장려하지만 재무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이 준비 중이다.

미주리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안티 ESG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돼있다.

미국의 안티 ESG 움직임은 EU로까지 건너가면서, 그린래시(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럽 국민들의 달라진 여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선언하며, 태양광 보급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독일의 경우, 보수정당 기독교민주연합(CDU/CSU)과 대안우파정당 독일 위한 대안(Alternatives for Germany·AfD)이 각각 지지율 28%와 20%를 기록하며 정당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정당들은 탈원전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특히 AfD는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며,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의 ESG투자가 중단됐다고 말하기엔 어렵다. 공화당 측은 금융계가 투자결정에서 ESG리스크에 대한 고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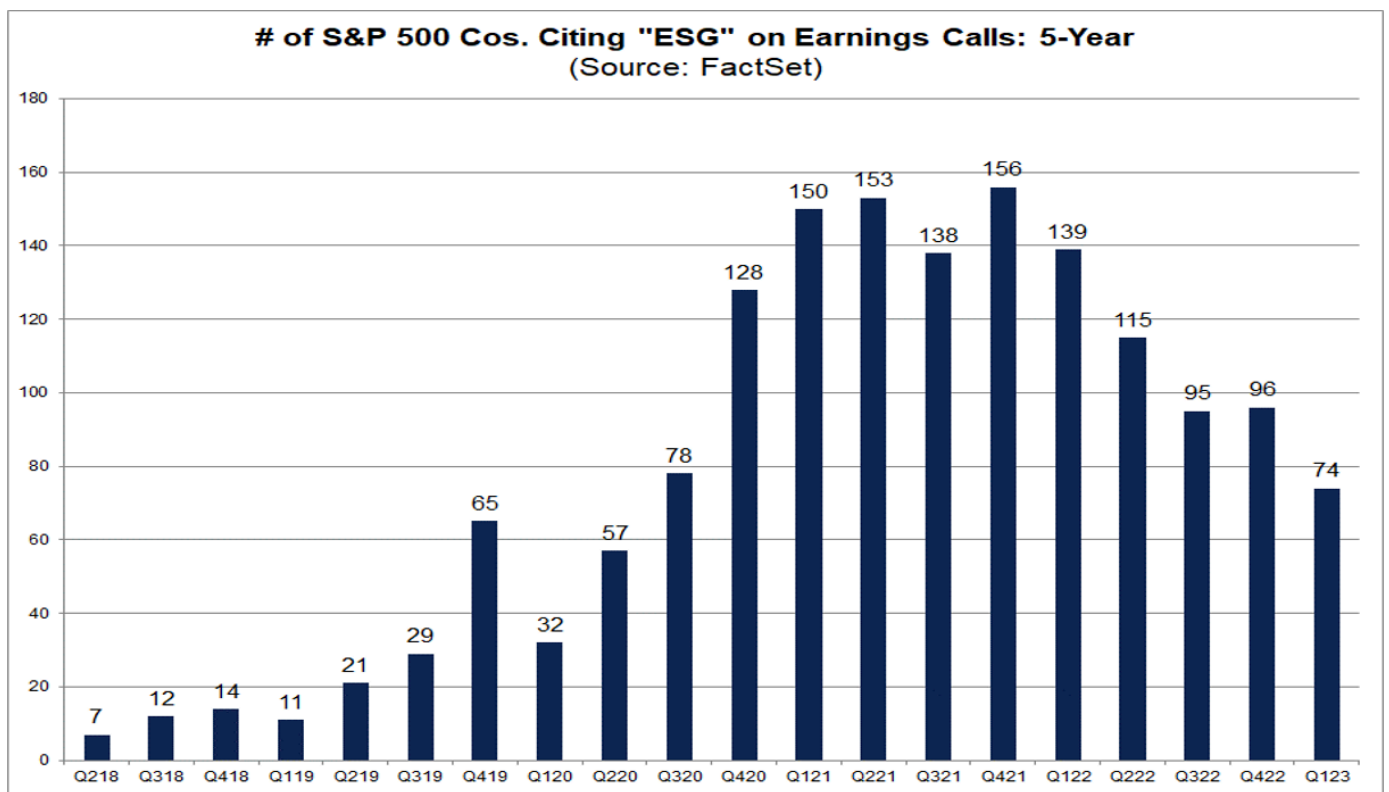
단적으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기후변화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려, 1000억달러(약 130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ESG투자를 수행하더라도 기후변화대응, 다양성 등의 키워드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익 추구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례로 블랙록은 지난 11월 텍사스의 세계 최대 탄소포집프로젝트에 5억5000만달러(7183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래리 핑크 CEO는 해당 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이슈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의 재무적 잠재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산업계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실제 세계최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E&S(환경 및 사회) 주주안건은 역대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C-레벨 임원 71%는 기업 성과에서 ESG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S&P500기업 실적발표에서의 ESG용어 언급 빈도 추이/ Factset

SDGs 및 임팩트에 대한 관심도 일부 커지고 있어

한편, ESG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리브랜딩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Factset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S&P500기업이 실적발표에서 'ESG'용어를 언급한 것은 74번으로 2021년 4분기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반면 ‘임팩트’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일례로 SASB초대 의장을 역임한 로버트 에클스 옥스포드 경영대 교수는 “ESG와 임팩트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가치사슬을 바라보는 좁은 개념이기에, 환경 및 소셜 임팩트 관리를 통해 넓은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클스 교수는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 가치사슬을 바라보는 좁은 개념인데,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어젠다를 추진하다 보니 지역사회 경제 붕괴, 노동자 불공정 처우, 일자리 소멸과 같은 소셜 임팩트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재무적 가치를 우선시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ESG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와 풀어낼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에클스에 따르면, 현재 기후변화대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단순히 기업들이 ESG를 못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지속가능성 즉, 임팩트 창출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기업 가치사슬 관점의 ESG활동이 아니라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포괄적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글로벌 금융계는 SDGs 달성에 초점을 맞춘 ‘임팩트 공개 협의체(Impact Disclosure Task Force-IDT)를 발족하면서, 기존의 ESG가 놓쳤던 ‘사회적 고려’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소셜 임팩트 관리에 대한 기업들간의 격차는 큰 편이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키어니(Kearney)가 글로벌 기업 602곳의 사회(S)분야 활동을 분석한 결과, 소셜 임팩트에 대한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은 48%에 불과하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셜 임팩트 활동을 기획하는 기업도 3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상위 5% 기업은 ▲NGO, 지역사회 등의 외부이해관계자와의 협력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 기획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및 역량에 소셜 임팩트 활동 연계 ▲사회적 책임활동의 소셜임팩트 측정 및 결과 모니터링 등의 강점을 보였다.

키어니는 선도기업들이 이미 소셜임팩트를 통해 장기적 재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안티 ESG 등의 사회적 반발이 심해질수록 사회(S)분야에 관리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에클스 칼럼

<https://impactalpha.com/cant-tell-the-players-without-a-scorecard-sorting-out-esg-impact-and-sustainability/>

S&P 500 기업 ESG 용어 사용 빈도

<https://insight.factset.com/lowest-number-of-sp-500-companies-citing-esg-on-earnings-calls-since-q2-2020>

미국 안티ESG법안 트래커

<https://www.pleiadesstrategy.com/state-house-report-bill-tracker-republican-anti-esg-attacks-on-freedom-to-invest-responsibly-earns-business-labor-and-environmental-opposition>

키어니- 글로벌 기업 사회(S)분야 활동 분석 보고서

<https://www.kearney.com/service/sustainability/article/kisp-how-companies-perform-in-the-s-of-esg>

로이터- State of Corporate ESG (설문 포함)

<https://www.thomsonreuters.com/en-us/posts/esg/state-of-corporate-esg-report-2023/>

독일 정당선호도 순위

<https://www.dw.com/en/far-right-afd-emerges-as-germanys-second-strongest-party/a-66154675>

금융계 안티ESG 대응 트렌드

<https://archive.is/20231211135457/https://www.ft.com/content/a76c7feb-7fa5-43d6-8e20-b4e4967991e7#selection-3717.0-3717.396>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elections-engagement-and-anti-esg-what-does-2024-have-in-store-for-the-us/>